2018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8. 7. 1. ~ 7. 2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캘리포니아 북부의 샤스타 카운티의 중심 레딩에 위치한 샤스타 컬리지는 지역에서 가장 큰 컬리지 중의 하나로 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묵었던 기숙사와 공동생활 시설 Commons 그리고 각 학부의 강의실 건물들이 있고 학교의 중앙에는 카페테리아와 서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샤스타 컬리지 외곽에는 미식축구장, 축구장, 야구장과 같은 체육 공간이 있으며 야외 수영장도 있습니다. 한국 대학교와 다른 점은 학교 내에 Campus Safety라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다는 점과 차를 끌고 학교에 오는 미국 학생들 특성상 주차장이 굉장히 많고 넓다는 것입니다. 방학 기간에 방문한 것이라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학생들을 캠퍼스 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미국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학기 중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를 채워 붐빈다고 합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웹 디자인 수업은 Brad(브레드)라는 강사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님은 매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Slack(슬랙)이라는 채팅 사이트를 이용해 많은 자료를 올려주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만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는 주로 CodePen(코드펜)을 이용하여 HTML, CSS, JAVA의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입력하는 과정을 따라하며 자신들의 것으로 응용하였으며 이는 WordPress(워드프레스)라는 필드 트립 기록일지 작성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강사님은 매우 친절하셨고 잘 모르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수업은 매우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고 학생들은 강사님에게 스스럼없이 질문을 하고 더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9시부터 10시 반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2시까지 각자 맡은 필드 트립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필드 트립은 7월 5일 목요일부터 7월 18일 수요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있었습니다. 7월 5일에는 Turtle Bay라는 곳에 가서 미국에 사는 여러 희귀한 동물들을 보았고 7월 6일은 샌프란시스코로 아침 일찍 출발해 Pier39에서 점심을 먹은 뒤 금문교를 보았습니다. 7월 9일에는 Whiskey Town에 가서 두 명씩 한 팀을 이루어 카약 투어를 했으며 7월 10일에는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 샤스타 동굴을 갔습니다. 7월 11일에는 거대한 샤스타 댐을 방문하여 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으며 7월 12일에는 Waterworks Park라는 지역 수영장에 가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7월 16일에는 지역에서 가장 큰 Crystal Geyser라는 물 공장을 견학하였고 7월 17일에는 시내에 위치한 샤스타 컬리지의 의과 건물에 가서 의학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8일에는 Burney Falls라는 미국 국립공원 폭포를 방문하였고 그 주변을 한 바퀴 걸으며 필드트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준비물은 대부분 수영복과 여분의 옷 그리고 수건이었으며 추가비용은 개인적인 비용 외에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프로그램 날짜 기준으로 현지 기후는 낮에 화씨 100~105도 정도를 웃돌았으며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지내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너무 더워서 외부활동 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선크림을 항상 챙겨 다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현지 안전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안전했습니다. 레딩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전해 들었고 노숙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항상 학교를 순찰하는 경찰이 있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더라도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는 2층을 사용하였으며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숙사의 침대는 초반에는 약간 불편했으나 금방 적응이 되었으며 두 명이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여느 학교들처럼 기숙사 내에 술 반입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21살부터 음주가 가능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술을 권유한 사람도 감옥에 갈 수 있으므로 굉장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식사	학교식당 ( ) 외부식당 (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식당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식사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과일과 샐러드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레딩 내에는 RABA(라바)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항상 자차로 데리고 다녀주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0,000	Mongolia Restaurant
헤어컷	15,000	Old Skool Barber Shop
기념품	10,000	San Francisco Pier
쇼핑	35,000	Hot Topic
식료품	20,000	Target
약값	10,000	San Francisco Airport
합계	145,000	총 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파견 전 레딩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나 캘리포니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수영복을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영복을 깜빡하고 챙겨가지 않아서 여러 번 불편을 느꼈습니다. 물놀이에 많이 가는 필드 트립 특성 상 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리퍼나 샌들을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내에는 슬리퍼가 없고 Commons (공동생활 공간)에 갈 때 꼭 필요합니다. 샌들은 물놀이에 갈 때 필수적입니다. 더운 지역 특성상 반팔만 가지고 오는 것도 좋으나 긴 팔도 여분으로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햇볕이 강해 반팔만 입고 다니면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고 강의실은 매번 에어컨을 틀어놓아 춥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비상약을 챙겨오는 것 또한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편지지와 편지 봉투 같은 것을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편지 쓸 일이 생길 것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인천공항에서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 레딩 공항에 내렸을 때 뜨거웠던 공기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

생합니다. 샤스타 컬리지에서 처음 우리를 향해 마중 나온 닉과 다음 날 반갑게 맞이해 준 친구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같이 귀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3년을 같이 지낸 사람들처럼 허물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는 정말 아쉬워서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많이 배웠느냐 보다 어떤 것을 많이 얻었느냐를 더 큰 가치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국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시야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 많이 설명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려줌으로써 친구들에게 동기 부여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몇몇 미국 친구들은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올 예정이고 올 생각을 새로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잘 생활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언이나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샤스타 컬리지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과제에 적용하거나 글을 올리는 데에 유용하게 이용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BBQ & POOL PARTY 단체 사진		San Francisco 단체 사진
Whiskeytown Kayak 단체 사진		Shasta Dam 단체 사진

Burney Falls 단체 사진		Last Presentation 마지막 사진